

순천시, 발효식품 산업 거점 된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창립...연구·개발 및 산업화 중추 역할 기대

발효식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순천시 창립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미생물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정관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후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4월까지 직원 채용, 5월 법인 운영이 시작된다.

재단법인은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총 10명의 임원과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18명 규모로 운영된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승주읍 병중리에 연면적 2264㎡ 규모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발효음료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설과 발효식품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 2개 동을 건립 중이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완공되면 발효식품을 연구·개발하고 실



지난 4일 순천시미생물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창립 총회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집목해서 산업화로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첨단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도 담당한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범유

행 이후 건강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세계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발효산업의 거점화를 통해 순천에 사람과 기업, 자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는 구례 반곡마을 산수유 군락지. 이곳은 봄을 알리는 노오란 꽃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상춘객들을 불러 모온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상춘객 맞이 환경 일제정비 실시

산수유꽃 군락지·지리산 정원 등 교통·방역대책 시행

구례군이 봄철 상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 등 환경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산수유꽃축제는 전면 취소됐지만 상춘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교통중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문교통관리 인원

을 산동면 약수장로터리 등 교통집중구간 20개 지점에 배치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산수유꽃 축제장 주변 시설물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수유꽃 주요 군락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일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종합상황실 및 방역초소를 운영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축제장 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산수유꽃축제장 주변뿐만 아니라 수목원 및 지리산정원 등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각 읍면의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하천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해 깨끗한 구레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경도 개발 공감소통 간담회

“관광 발전” vs “경관 저해”

‘1조5000억 투입’ 해양관광단지 개발 방식 두고 이견

1조5000억원이 투입돼 해양관광단지 조성 중인 여수 경도 개발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여수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면 경관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도개발 관련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다.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미래에셋건설링, 지알디벨로먼트 관계자와 여수시의회,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연합회, 시민단체와 언론인, 인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2.15㎢(62만평)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마린, 상업시설 등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경관 문제와 교통·환경,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 연륙교 건설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태수 대경도발전협의회 회장은 “경도개발은 여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

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김성문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타워형 레지던스 건설은 경관을 저해한다”며 “구도심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평 전국 이·통장연합회 여수지회장은 “미래에셋이 경도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여수에 재투자하도록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도 개발을 맡은 미래에셋은 비수기를 대비한 장기형 숙박시설이 세계적인 관광단지의 트렌드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기 논란을 일축했다.

또 여수소재 기업과 장비 우선 참여, 지역인재 우선 고용,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개발이익 재투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3월 중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정상 추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제 운영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제도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속 채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고흥군, 해장만·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고흥군이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해장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사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장만 간척지는 215ha, 오마간척지는 13ha 등 총 228ha가 일시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 6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부터 8일 집중호우로 6개 읍면에서 148명의 농민이 360필지 130ha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봤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전남도에 피해 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월 전남도로부터 임대료 7600만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간척지의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불변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예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3월호

2022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걷고 싶은 도시

광주를 꿈꾼다

— 걸으면 도시가 살아난다
— 도시에 퍼지는 푸른 입김, 행복해지는 길
— 걷고 싶은 길, 연대와 이야기 있는 살고 싶은 도시
— 걷는 사람 중심 공간 대전환, 일본의 워킹시티

영동 코티지서
美路 味路
생태관광의 최적지 구례의 새봄, 싱그럽다
— 5년만에 복원된 화엄사 4사자3층석탑
— 산수유마을과 쌍산,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
— '지리산과 하나되기' 산수유와 '복내리는 당산나무' 김부각
— 우리일로 만드는 수제과자점 '사나레밀'

연중 기획·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3월 광주여행 #K-POP #Fan zone #빅화

예향 초대석

시민과 인문학 소통하는 철학자
성진기
“철학이 대중 속에 숨쉬면 좋겠어요”
해외문화기행 4- 독일 뉘른베르크
중세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뒤러의 예술과 고풍 성벽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⑨
해인사
샷된 없는 깨달음의 청정도량

문화를 품은 건축물 ⑨
자연 담은 '물 위의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 화제
박서보예술상 재정으로 본 광주비엔날레와 예술상
회제의 전시
광주에 동지 트 외지 문화인들이 말하는 '광주라는 도시'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②
"산밥에 총각김치면 죽해"
윤형근, 그림처럼 단순한 점심

문화 화제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⑧
영화 '더 파더'와 비제 '진주조개잡이' 아리아